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적 이해도 비교 : 예비 연구*

김 성 일

강릉대학교 교직과

타인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대리적 반응으로서의 공감은 부모 자녀관계, 사회적 이해, 친사회적 행동, 상담과정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공감에 관한 많은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조적인 문화권에서 대학생의 공감의 차이를 비교하려는 것이었다. 33문항으로 구성된 Mehrabian과 Epstein의 정의적 공감검사와 8문항으로 된 부모행동검사(간편형)의 결과가 우편조사를 통하여 60명의 한국 대학생과 32명의 캐나다 대학생에게서 수집되었다. 공감점수는 캐나다 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여자의 공감점수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성차는 캐나다 학생에게서 더 현저하게 드러났다. 부모행동의 두 차원인 통제와 지지도 캐나다 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는 한국 남학생에게서만 공감과 유의있는 상관(.42-.54)을 보였고, 캐나다 여학생의 공감은 아버지의 지지 차원에서만 유의있는 상관(.45)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상이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문화적 영향에 기인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공감 또는 감정이입 (empathy)은 모자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대인관계의 효율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사회적 이해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철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인간 성격의 어두운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심리학적 관심이 변화됨에 따라 근래에 와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Feshbach, 1978).

Feshbach(1982)에 의하면 공감에 의해 수반되는 여러가지 효과로는 사회적 이해, 정서적 능력의 증대, 동정심, 배려, 공격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규제, 자기인식의 증가, 의사소통 기술의 증진, 행동에서 인지적 정의적 대인관계 측면의 조화 등이 있다. 공감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해를 토대로 자기발전과 자아개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Plutchik (1987)은 유인원과 같은 동물도 상호간의 감정표현과 분명한 욕구를 이해 전달함으로써 집단행동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을 유발하여 적을 퇴치하고 집단 결속과 상호 배려를 조장하는 생존적 가치를 지닌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감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 예측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증진에 기여한다(Clark, 1980 ; Smither, 1977 ; Redmond, 1989).

현대에 이르러 공감은 성격 임상심리와 사회 발달심리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다. 교육 및 상담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성격변화와 학교에서의 행동이 어떤 방법적인 접근 보다도 공감의 요인과 더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Rogers(1957, 1975)가 특히 이와 같은 면을 강조하였다. 그는 고도의 공감이 상담과정에서 성격변화를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공감이 없이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상담자의 공감에 의해서 내담자는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공감은 상담자의 기본 자질중의 하나이며(Patterson, 1984), 상담과정에서 자기탐색의 목표와 상담의 시작·유지에 도움이 된다(Gladstein, 1983). 또한 공감적 이해심이 많은 교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gers(1983)는 의미있는 학습이 교사의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공감적인 태도에 의해서 촉진된다고 하였고, Truax와 Tatum(1966)도 교사의 공감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의 공감도 자녀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성실조(maternal deprivation)와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Natale, 1972 ; Chlopan, et al., 1985 ; Wise & Cramer, 1988)에 의하면 부모의 공감 부족이 자녀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히 부모 자녀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잘 이해할 때 보다 원만히 된다. 이는 자녀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을 요하는 것이다(Maccoby, 1992).

공감에 대한 관심이 근래에 증대된 이유는 무엇 보다도 그것이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발달심리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감과 이타심 원조행위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공감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예를 들어 관용성(Bryan, 1972) 이타심(Hoffman, 1970 ; Rushton, 1980) 원조행위(Staub, 1971) 협동심(Kohlberg, 1969) 도덕적사고(Piaget, 1932 ; Eisenberg, 1992 ; Eisenberg & Fabes, 1991)의 획득을 설명하는 주요 기제로 가정되어 왔다.

McDougall(1908)은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관찰자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고 원조행위를 유발시킨다고 하였고, Piaget(1928)도 유아는 나중에 도덕적 행동으로 변하는 정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공감은 타인의 반응을 예측 기술 추론하는 사회적 정의적 역할 채택을 포함하고 있다(Underwood & Moore, 1982). Hoffman(1975, 1979)은 이타심과 관련하여 역할 채택 능력의 발달이 타인의 곤경을 이해하는 일반화된 공감적 고통으로 발전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타인의 사고 동기 감정에 대한 인식은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으로 발전되며 그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동기가 된다. 그러므로 공감은 세계는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위배되는 인지적 불균형을 야기시켜 타인을 도움으로써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시도하게 되며 이타행위의 동기가 되는 도덕적 책임감을 자극시킨다. Barnett(1987)도 역할 채택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조장하는 경험이 아동의 협조와 상부상조의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보면 이 둘의 긍정적 관계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Barnett & Melton, 1982 ; Buckley, Siegel & Ness, 1979 ; Roe, 1980 ; Eisenberg & Miller,

1987; Eisenberg & Mussen, 1978)에서 공감은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 원조행위, 관용, 협동, 이타심과 긍정적 상관을 보였고, 5-7세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한 홍화진(1987)의 연구에서도 공감과 이타심은 .49의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Barnett, et al., 1981; Eisenberg & Mussen, 1978)와 대학생(Batson, et al., 1981; Mehrabian & Epstein, 1972; Schaller & Cialdini, 1988; Schroeder, et al., 1988) 및 성인(Krebs, 1975)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감은 이타심과 긍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감과 이타심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Underwood와 Moore(1982)는 3세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양자의 상관이 .02-.59라고 하였으며, Koestner, Franz와 Weinberger(1990)도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공감적 이해는 타인의 감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갈등 장면에서 이해의 폭을 증가시킴으로써 갈등과 공격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즉, 공감의 대리적 정서 반응을 통해서 적대적 행동의 고통스러운 결과에 대한 인식이 가해자나 관찰자의 공격적 경향과 행동을 억제하게 된다. Feshbach(1978, 1979)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공감은 교사의 평정에 의한 공격행동과 역상관을 보였고, Mehrabian과 Epstein(1972)은 공감이 높은 사람이 실험대상에게 고통의 단서가 현저할 때 전기 충격을 덜 가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Miller와 Eisenberg(1988)의 통합분석(metaanalysis) 결과에 의하면 이 양자의 적상관이 .06-.46이었다.

그러나 공감이 원조행위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유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협조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개입할 자신이 없을 때 또는 공감에 의해 너무 고통을 느낄 때는 정서적 느낌을 적절한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다(Barnett, 1987; Hoffman, 1977). 실제로 아동의 공감이 원조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Eisenberg & Lennon, 1980; Feshbach, 1968; Iannotti, 1978). 공감이 원조행위를 유발하는 것은 부정적 사회적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나(Archer, et al., 1981; Fultz, et al., 1986; Strayer & Schroeder, 1989) 개인의 비애감을 감소시키려는 이기적 관심과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Cialdini, et al., 1987; Krebs, 1975) 또는 호혜의 규준 때문이라는 주장(Rushton, 1980)이 있다. Zahn-Waxler 등(1992)은 곤경의 상황에 따라 아동이 심신의 해를 타인에게 가했을 때는 목격자의 입장에 비하여 보다 공격적이고 가해를 즐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였다. Allport(1924)는 “동정에 의해서 야기된 정서가 타인 보다는 우리 자신의 언짢은 상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고, Wallach와 Wallach(1983)도 심리학에서 공통된 가치는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동기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이기적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Batson(1989)은 공감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이기적 동기에서만 아니라 개인적 기준에 따라 타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민이나 동정에 의해 순수한 이타적 행위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하였다. Fultz 등(1986)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원조행위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감이 순수한 이타심의 작용으로 원조행위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공감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의 유발과 반사회적 행동의 억제, 도덕의식의 함양, 성격 및 대인관계의 문제 해결에 관련된 상담과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감에 관한 국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수(김민화, 최경숙, 1993; 김지순, 1985; 김희태, 1989; 홍화진, 1987)에 불과하

고,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적 이해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차와 부모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캐나다의 학생들과도 비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 비교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개략적인 면에 국한된 예비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캐나다와 한국과 같이 대조적인 문화권에서 대학생들의 공감을 비교하는 것은 부모 자녀관계의 영향을 보다 분명히 규명하고 문화적인 보편성 또는 특수성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감의 개념

공감의 개념은 심리학에서의 다른 개념과 마찬가지로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주된 논쟁은 공감이 정의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었다.

공감은 1897년 독일 심리학자 Theodore Lipps가 심미적 지각과 감상에 관한 저서에서 Einfühlung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고(Katz, 1963), 1910년에 Titchener가 empathy로 번역하였다. 독일어의 공감은 타인과 일체감 또는 한마음이 되는 것(feeling into another)으로 예술작품에 반영된 감정의 이해 까지도 포괄한다. Lipps는 예술자들과 같은 대상을 검토할 때 대상에 자신을 투사하여 동일시를 이루고 내면적으로 모방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대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고 믿어 운동감각적 모방(motor mimicry)을 공감의 중심과정으로 확대하였다. 관찰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대상의 여러 측면을 가정하여 모방하고 사람의 경우에는 신체적 모습 표정 동작의 어떤 면을 택함으로써 내적 단서가 관찰자의 내면에서 파악되어 대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대상 인물과 감정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Gol-

dstein & Michaels, 1985). 공감의 정의적 차원은 가끔 집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파급(emotional contagion)의 초보적 과정이라고 기술한 McDougall(1908)과 모자간의 감정적 교류(emotional communication)로 기술한 Sullivan(1953)의 얘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Freud(1921, 1950)는 다소 복잡하게 공감이 어머니의 정신적인 면에 관한 태도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동일시 기제와 관련된다고 하였고, Fenichel(1954)은 공감을 동일시 기제의 정의적 결과로 간주 하여 타인과 동일시 이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타인의 감정도 알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은(Clark, 1980; Mehrabian & Epstein, 1972; Hoffman, 1976, 1977, 1982) 공감을 타인의 정서 상태의 대리적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담분야에서도 공감을 내담자의 생활을 감정적으로 공유하고 그것을 내담자에게 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Rogers, 1975; Gladstein, 1983; Feldstein & Gladstein, 1980; Fultz, et al., 1986; Barnett Lennard, 1981; Hackney, 1978).

주로 인지적 요소를 내포한 공감의 개념은 Mead(1934)와 Cottrell(1942)의 사상에서 시작되었다. Mead는 공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p. 366) 공감능력이 역할채택과 모방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모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학습된다고 하였고, 이를 기초로 Cottrell은 인간의 상호작용 이론을 발전시켜 공감이 타인의 행동을 재연함으로써 그에 반응하는 것이고 이 재생은 지각과 내적 태도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즉 공감과정의 핵심은 타인의 역할을 채택하거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지적 요소라는 것이다. 발달심리학자들도 공감을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지각하는 역할채택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Piaget(1928, 1932)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유아기에 아동은 자신과

주변세계를 혼동하여 자기 견해를 절대시하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타인의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영향으로 인하여 10-12세 경에는 논리적 사고가 나타나고 타인의 관점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세계를 타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지각활동과 경험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는 역할 채택 능력의 발달에 좌우되므로 Piaget의 탈중심(decentering) 개념은 역할 채택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으며 Mead(1934)의 개념과도 상통된다. 아동의 공감에 대한 인지적 접근에서는 공감을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이해와 대인 지각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Borke(1971)는 공감을 타인의 감정상태를 변별하는 능력으로, Chandler와 Greenspan(1972)은 타인의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공감을 사회적 통찰력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Dymond, 1949, 1950; Gladstein, 1983; Koestner, Franz & Weinberger, 1990; Chandler, 1973).

그러므로 인지적 관점에서는 공감을 타인의 사고 감정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적 관점에서는 타인의 정서 경험에 대한 대리적 반응, 즉 타인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며 그에 대한 동정과 연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약하면,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정서의 인지를, 정의적 요소는 정서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의 인지적 정의적 요소는 상호작용을 한다(Strayer, 1987). 타인에 대한 대리적 정서 반응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지적으로 추론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며 타인에게서 추론할 수 있는 정서에 의미를 추가하는 내적 단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공감은 여러 기능이 관련된 것이며 그 성질은 상황, 감정의 성질과 표현방식에 따라 다르다(Smith, 1977). 생활 경험과 대인관계의 정도 변화는 개인이 감정을 이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정서적 관여의 경험이 없는 아동은 성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성인은 사회적 관점채택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곤란을 느낄 수 있다. Selman(1975)은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통합한 공감적 이해의 인지발달적 체계를 제시하였고, Feshbach(1978, 1979)도 공감의 3요소설을 주장하여 타인의 정서상태를 변별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 채택 정서반응의 공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Hoffman(1982)은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과 타인도 자신과 다른 감정 상태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공감반응의 토대가 된다고 함으로써 인지적 정의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인정하였다.

공감이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보편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특정한 현상이나 과정에 선택적으로 관심을 둬으로써 일반적 의미에 대한 함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현상학자들은 타인의 지각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신분석학자들은 상호 전이 과정에 의한 대상과의 동일시로, 행동주의학자들은 타인의 단서에 대한 학습된 반응으로 인식하고 있다(Marks & Tolsma, 1986). 넓은 의미에서 공감은 사회적 이해를 가져오는 정의적 반응으로서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지적 과정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Feshbach, 1978), 역사적 기원과 여러 사람들의 개념 규정(Hunsdahl, 1967; Lucins, 1957) 및 응용적인 면에서 볼 때 사회적 인지와 대인지각을 매개하는 인지적 기능이나 과정과는 다른 감정적 경험의 공유이다. Strayer와 Eisenberg(1987)는 공감이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함께 느끼는 행위로서 정의적 요인이 주성분이라고 주장하였고, 공감의 다단계설을 주장하는 Gladstein(1983)과 Barnett-Lennard(1981)도 인지적 단계보다 정의적 단계가 우선한다고 하였다. 공감에 관한 어원을 보더라도 희랍어 *empathia*는 고

통의 속성을 지닌 감정을 의미하며, 라틴어 *pathos*는 감정의 지각을 의미한다(Barnett-Lennard, 1981). Hoffman(1977)이 언급한 바와 같이, 철학자들이 사회적 도덕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도 정의적 공감이며, 심리학자들이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요인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 요인이다. 즉, 타인의 감정에 대한 대리적 정서반응(Hoffman, 1977a; Mehrabian & Epstein, 1972)이 공감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취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공감과 유사 개념으로 동정과 투사가 사용되는 수가 있으나, 동정은 타인의 곤경에 대한 인식으로서 감정의 일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Eisenberg, 1989; Wispe, 1986) 공감의 결과로 나타난다(Eisenberg & Strayer, 1987). 투사는 감정적 속성을 상대방과 공유하지만 반응의 방향이 다르다. 즉 관찰자의 특성이 대상에게로 귀속된다.

공감의 발달

공감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발달한다. 흔히 유아는 이기적 요구적이어서 타인의 욕구에 대한 반응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아동 중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훨씬 일찍부터 공감의 경향이 출현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유아는 생후 첫 주에 다른 유아의 울음소리에 고통과 울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컴퓨터 조작에 의한 인위적 울음소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Barnett, 1987). 이와 같은 초보적 공감 반응은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선천적 능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Hoffman(1975)은 다른 유아의 울음에 대한 유아의 반사적 울음이 공감의 생물학적 경향을 반영하는 증거라고 하였다. 그(1981)는 공감의 생리적 토대가 두뇌의 감

정 중추인 변연계(limbic system)에 있으며 이것이 고통과 즐거움을 관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lark(1980)는 공감이 두뇌의 전두엽(anterior frontal lobes) 발달의 결과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전두엽 절제 수술 후 인간은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이기적 욕구 충족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Zahn-Waxler, Robinson과 Emde(1992)는 184명의 쌍생아 연구에서 공감이 생후 14개월에서도 확인되어 유전적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Matthews 등(1981)도 200여 명의 쌍생아에 관한 종단적 연구에서 공감의 개인차가 유전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감 점수의 상관은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41, 이란성은 .05로 밝혀졌다. 유전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인류에게 공감 능력의 유용성을 역설하고 있다. 생존을 위하여 타인의 감정과 동기를 파악하고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하는데 공감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은 학습과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발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가장 종합적으로 연구한 Hoffman(1975, 1976, 1979, 1982 b, 1989)은 5가지 기제에 의해 공감이 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고전적 조건형성: 타인의 정서에 대한 표현적 단서를 관찰하는 동안 유사한 정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긴장이나 불안은 신체적 경직을 초래하고 신체 접촉에 의해 유아도 동시에 고통을 느끼게 되며 나중에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어머니의 표정과 언어적 표현에 의한 고통의 단서가 조건 자극으로서 아동의 고통을 야기시킨다. Aronfreed(1970)도 아동은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을 가져오게 됨을 알고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단서에 정서적 반응을 발전시키며, 타인의 고통이 자신에게 부정적 결과를 직접 초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리적 정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직접적 연합 :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보면서 그의 표정 음성 동작이나 상황적 단서에 의해 비슷한 정서적 경험을 한 과거의 상황을 상기함으로써 비슷한 정서를 느낀다. 예를 들면, 누가 다쳐서 우는 것을 보고 울음소리 피 다른 단서가 과거의 유사 경험을 상기시켜 공감적 고통을 느끼는 경우이다.

모방 : 타인의 정서표현에 대한 학습되지 않은 반응이다. 관찰자는 타인의 표정과 자세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모방하여 이 운동적 단서가 동일한 감정의 이해와 경험에 기여한다.

상징적 연합 : 모델이나 상황의 정서적 단서와 그에 관련된 관찰자의 과거 경험간의 연합을 의미한다. 모델의 단서가 그 물리적 표현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관찰자의 공감적 정서를 야기시킨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 듣거나 편지를 읽고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즉 언어가 주매개체로 작용한다.

역할 채택 : 타인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는 의도적인 인지행동을 뜻한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 자극이 우리에게 가해졌을 때 어떻게 느낄지 생각할 때 일어나는 공감 반응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비슷한 정서적 경험을 한 자신의 과거 상황과 연합을 야기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즉, 공감 발생은 사태의 인지적 변형에 의한 것이므로 의식적 통제의 영향을 받는다.

공감은 인지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감의 경험은 인지 수준에 따라 다르다. 신생아는 자신과 타인의 변별이 없으나, 10개월 경에는 “인물항상성”(person permanence)을 획득하여 타인을 구별하고, 2-3세경에 타인도 자신과 다른 내적 상태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아동 후기에는 타인의 개인적 정체감과 생활 경험을 깨닫게 된다(Hoffman, 1982b). 이와 같은 사회 인지적 단계의 발달을 통하여 다음 4가지 수준의 공감 반응이

나타난다(Hoffman, 1982b, 1989).

막연한 공감(global empathy) :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기 전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것으로 유아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막연한 단서에 의해 스스로 불쾌한 감정을 느껴서 행동하는 경우이다. 정서를 경험하는 주체가 누군지 불분명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일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면, 다른 아동이 넘어져 울면 자신도 울듯하면서 쳐다보다가 마치 자기가 다친듯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기중심적 공감(egocentric empathy) : 타인이 자신과 다름을 알게 되지만 그의 내면 상태가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슬피보이는 어른에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인형을 주거나 우는 친구를 달래기 위해 자기 어머니를 데려오는 경우이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 역할 채택을 하게 되면서 아동은 타인의 감정이 자신과는 독립적이고 그들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대한 해석에 입각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타인이 느끼는 단서에 반응한다. 3세 경에 아동은 단순한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 반응을 할 수 있으며, 언어 발달과 더불어 신체적 표현만 아니라 상징적 단서의 의미를 파악하여 광범위한 정서에 공감할 수 있고 대상이 없어도 타인의 감정에 적절한 정보에 의해서 공감을 하게 된다.

타인의 일반적 생활 조건에 대한 공감 : 아동 후기에는 자신과 타인이 별개의 역사와 정체감을 지닌 인간임을 인식하고 타인도 당면 상황 이외의 감정과 경험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어 타인의 한시적 고통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곤경에도 공감적 관심을 갖게 된다.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의 경우처럼 때로는 상황적 표현적 단서와 모순될 수 있는 타인의 일반적 곤경 복지의 관념과 결합된 정서를 느끼게 된다. 즉각적 상황이나 표현적 단서

는 순간의 상태를 반영하므로 그 힘을 상실한다.

이 4단계를 거친 사람은 고도의 공감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대리적 정서 반응 상황적 단서 타인의 생활에 관한 일반적 지식 등에서 얻은 여러 정보를 처리하여 타인의 상황 감정 소망을 이해하고 정의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공감은 다르다. 복잡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역할채택은 청소년기 이후에 가능하다. Baldwin(1906)은 아동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파급된 고통 반응을 반성적 이해와 배려의 초보적 형태인 “기질적 동정심”으로 구분하였다. 정서 판단의 정확도는 아동 중기까지는 나타나지 않으며(Wise & Cramer, 1988), Sullivan(1940)도 청소년 초기가 공감 발달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공감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발달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Borke, 1973; Feshbach, 1978; Hughes, Tingle & Sawin, 1981; Kurdek & Rodgon, 1975; Underwood & Moore, 1982)에서 밝혀졌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감 발달

공감은 생리적 유전적 요인, 조건형성과 관찰학습, 인지발달, 상황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한 사회 정서적 경험도 큰 영향을 미친다(Strayer & Eisenberg, 1987). 사회화 연구에서 부모의 행동이 선행요인이고 자녀의 행동은 결과로 흔히 가정되지만 양자의 상호작용 또는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ccoby, 1992).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아동의 행동을 조절하고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부모는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기준 타인에 대한 자녀 행동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Miller, et al., 1989), 자녀의 정서적 욕구 충족과 표현의 조장 및 지나친 자기 관심의 방지 등을 통하여 공감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Bar-

nett, 1987; Maccoby & Martin, 1983). 그러나 Goldstein과 Michaels(1985)는 극단적인 고통이나 불행한 경험에서와 같이 아동이 경험하는 감정의 강도가 너무 높으면 여러가지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공감 능력의 저하를 가져 온다고 경고하였다.

정의적 공감은 생후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증거도 있으나(Hoffman, 1982a), 공감 반응에서 안정된 개인차가 2세부터 나타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Koestner, Franz & Weinberger, 1990) 어릴 때의 가정환경이 공감 발달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Barnett 등(1980)은 대학생의 공감과 아동기의 부모양육 방식에 대한 회고를 조사하여 공감이 높은 대학생의 부모가 아동기에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보다 애정적이었으며 감정을 많이 논의했었다는 것을 밝혔다. Koestner, Franz 및 Weinberger(1990)도 7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5세 때의 부모양육 방식과 31세 때의 공감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어릴때 부모의 행동이 성인의 공감 수준의 변량을 36% 설명한다고 하였다. Barnett(1987)는 공감 발달에 기여하는 부모의 행동과 양육방식을 다음 7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모자간의 초기 애착관계: Sullivan(1953)은 공감 반응이 어릴때 어머니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한 공감적 관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Mussen과 Eisenberg(1977)도 “유아기의 강한 애착이 타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후에 공감 발달의 필요 조건이 된다”(pp. 169-170)고 주장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에 의해 형성된 강한 신뢰감과 안정감이 아동 자신의 욕구 충족에 덜 집착케 하여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더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정은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최초의 언어이다. 모자간 애착이나 정서적 상호작용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accoby, 1992; Rutherford & Mussen, 1968; Zahn-Waxler &

Radke-Yarrow, 1990). 어릴때 모자간 애착이 강할수록 성인이나(Barnett, et al., 1980) 아동의 공감도 강하다(Barnett, et al., 1980; Barnett, 1987; Eisenberg, 1989; Waters, Wippman & Stroufe, 1979)는 연구결과는 많이 있다.

부모의 애정: 초기의 강한 애착에서 공통요인은 부모의 풍부한 애정이다. 부모의 애정은 아동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공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arnett, 1987; Hoffman, 1982b). Baumrind(1973)가 말하는 권위적(authoritative) 부모 유형은 애정과 일관된 요구가 결합된 것으로 아동이 다른 가족의 요구에 반응하고 자신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책임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Dekovic와 Janssens(1992)는 부모의 권위적 행동과 자녀의 도움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아버지의 행동과 .19, 어머니와 .35라고 하였다.

청소년과 어머니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수용 지지 관여가 공감발달에 기여하는(Jensen, et al., 1981; Eisenberg, 1989; Feshbach, 1975; Eisenberg & Mussen, 1978; Barnett, et al., 1980) 것으로 밝혀졌으나 어머니의 통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는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Clarke-Stewart & Apfel, 1978; Roe, 1980b; Koestner, Franz & Weinberger, 1990) 반면에 지나친 통제나 체벌은 공감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ryant, 1987; Feshbach, 1978; Goldstein & Michaels, 1985; Roe, 1980b).

아버지의 수용과 지지 관여도 자녀의 공감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Bryant(1987)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보다 강력한 성인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그의 지지를 아동이 보다 주목하여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이해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Rutherford와 Mussen(1968)은 아버지의 관여가 공감점수 변량의 13%를 설명한다고 시사하였다.

Koestner, Franz 및 Weinberger(1990)도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여가 자녀의 공감과 .38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아버지의 통제가 심하고 권위주의적일수록 자녀의 공감이나 도덕성은 낮게 나타났다(Feshbach, 1978; Roe, 1977, 1980b).

부모의 모범: 모방과 동일시 과정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Mussen & Eisenberg, 1977). Tomkins(1963)는 자녀의 무력감과 고통에 동정과 관심을 보이는 감정 표현이 풍부한 부모가 수치심 없이 고통을 표현하고 타인의 고통에 동정을 표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셈이라고 하였다. 즉 부모의 공감이 모범을 통하여 자녀에게 전달되어 공감 반응을 강화하고(Feshbach, 1987)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Rogers, 1951). 자녀의 욕구와 고통에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타인의 고통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도우려는 경향을 보였고(Zahn-Waxler, et al., 1979), 어머니의 공감이 아버지보다 높을때 공감은 여성에게 더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 여아의 공감 발달을 가져오며(Barnett, et al., 1980), 어머니의 공감이 자녀의 공감과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다(Eisenberg, 1989; Strayer, 1983).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공감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귀납적(inductive) 훈육 방식의 이용: Hoffman(1975)에 따르면, 아동이 타인에게 해를 입힌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도록 하는 부모의 설득은 아동의 공감적 이해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 설명을 훈육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모의 자녀는 “권위주장적”(power-assertive) 부모의 자녀보다 관용과 타인에 대한 고려를 잘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Hoffman & Saltzstein, 1967; Alper, 1985; Zahn-Waxler, et al., 1992). 자녀

의 감정을 이해하고 부적절한 행동의 대안을 제시하는 부모의 분명한 의사 표현 방식을 Stollak (1978)은 훈육을 위한 의사 표현(discipline communication), Hoffman(1970)은 귀납적 훈육, Gordon(1976)은 적극적 청취(activelisting)라고 하였다. Zahn-Waxler 등의 연구(1979)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아동의 민감성과 반응의 발달에서 부모의 훈육 방식의 역할을 분명히 밝혀 주었다. 이 연구에서 아동의 공감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아동 자신의 행동 원인과 그에 따른 행동 원칙에 대한 어머니의 설명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Perry, Bussey와 Freiberg(1981)도 귀납적 설명이 죄의식으로 인한 공감 반응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이고 타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Zahn-Waxler 등(1979, p. 327)은 단순한 설명보다는 “정서적 색채를 가미한, 가끔 강한 설득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상황의 중요성을 아동에게 가르치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솔선수범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애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부모의 기대의 순응 여부에 따른 예상 결과를 자녀에게 전하며, 타인과 상호 작용시에 적절한 감정이나 행동을 표현 또는 억제토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Miller, et al., 1989).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순응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는 권위주장적 호소는 외적제재가 없거나 피할 수 있을때 이타심을 유발하지 않고(Perry, Bussey & Freiberg, 1981), 안전과 위협에 대한 우려에서 야기되는 불안 때문에 타인의 욕구와 상황에 관심을 쏟을 수 없게 만든다. Miller 등(1989)은 어머니의 자녀 행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금지와 같은 부정적 통제방식이 자녀의 공감과 역상관을 보이는 이유는 부정적 통제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좌절시켜 타인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불안 거부 자책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타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의 발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효능감의 발달을 억제하며, 자신과 타인의 고통의 연합을 야기시켜 타인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방식을 발전시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나친 경쟁심의 억제 : 고도의 경쟁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높혀 타인의 욕구에 둔감하게 만든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Barnett, 1987), 경쟁심이 높은 남아가 공감 반응이 낮고 가정이나 학교의 경쟁적 분위기가 공감 수준의 저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경쟁 조장은 남아의 공감 약화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Eisenberg, 1989; Feshbach, 1975, 1978).

타인과의 유사성 강조 : 아동은 성이나 개인적 특성 등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보다 공감적으로 반응한다(Barnett, 1984; Bryant, 1982; Feshbach & Roe, 1982). 이는 아동을 타인도 자신과 비슷한 것으로 지각하도록 격려하고 모든 인간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이 공감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Hoffman(1976, 1982)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아동이 타인과의 비교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과 경험에 아동을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보호되거나 감정 표현이 억제된 아동은 타인의 곤경이나 고통이 낯설게 지각되어 공감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Feshbach(1982)는 가족의 상실이나 심각한 질환과 같은 경험에 의해 공감 반응이 증대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또 타인과의 유사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모든 인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보편적 신념과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조장될 수 있다.

긍정적 자아개념의 조장 :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격려받은 아동은 공감적인 경향이 있다. Feshbach(1982)는 자녀의 공감이 어머니의 긍정적 자아상을 조장하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시사하였다. 특히 자신을 독립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이 공감 발달에 중요하다. 타인

을 돕는 기회와 능력을 갖도록 조장된 아동이 타인과 공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함께 느낀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각하기 때문이다. Hoffman(1976)은 아동에게 역할 채택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인의 관점에 대한 인식과 고통에 대한 공감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건전한 자아의식에 손상을 입히거나 거칠게 취급된 아동은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학대 받은 아동은 감정 표현을 확인하는데 부정확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이나 관심을 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대해 분노나 공격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arnett, 1987).

이상의 부모 행동과 공감 발달의 관계에서 부모 행동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가 지지(support)와 통제(control)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지는 자녀와 긍정적인 정의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지각된 상호 작용이며, 통제는 자녀에게 부모의 요구대로 행동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지각된 상호 작용의 특성을 의미한다(Thomas, et al., 1974). 통제의 효과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녀에게 기대되는 행동규범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으며, 자녀는 그 기대에 순응하게 된다. 지지의 효과는 자신이 가치있는 존재라는 정보를 자녀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있다. 부모의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정의로움의 측면에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성일(1993)은 부모의 지지와 통제의 차원과 그에 따른 청소년의 성격 발달에 관하여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지지와 통제는 자녀의 공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감의 성차

공감의 성차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경험적 또는 실증적으로 여성의 공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Baumrind(1971, 1980)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5년 종단 연구에서, Adams, Schvaneveldt와 Jensen(1979)는 8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Wise와 Cramer(1988)도 84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두 여자의 공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Hoffman(1977b)과 Feshbach(1982)가 연령과 검사 종류에 무관하게 여성의 공감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Hall(1978)도 신체적 단서 안면 표정 음성을 해석하는 75종의 연구를 분석한 후 여성이 타인의 고통에 관계된 시 청각적 단서를 해석하는 능력이 더 높다고 결론지었다. Block(1976)은 공감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후 성차가 없다고 하였고, Maccoby와 Jacklin(1974)도 30종의 연구 결과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렸지만 공감의 여러 요소를 세분하지 않고 종합한 것이다. Hoffman(1977a)은 유아의 반사적 울음과 그림 이야기기에 의한 공감 검사를 이용한 16종의 실험 결과에서는 여자의 공감 점수가 모두 높았지만, 정서 인지를 측정한 16종의 실험과 인지적 역할 채택에 관한 21종의 실험 결과에서는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Eisenberg와 Lennon(1983)은 7가지 측정 방법에 따른 공감의 성차를 기존 연구의 통합 분석을 통하여 가장 광범하게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성인 위주의 생리적 측정법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유아의 울음에 대한 반사적 울음 아동용 그림 이야기 방법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아동의 신체적 반응 가상적 상황에서의 자기보고 공감 검사에 대한 반응 교사나 동료에 의한 평정에서 모두 여성의 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공감의 정의적 요인과 성인 위주의 자기

보고 방식 및 유아의 반사적 울음에서 성차가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차는 유아의 울음에 대한 여아의 반사적 울음의 경우에는 기질적 생물학적 경향을 그 원인이라고 하고 있지만(Hoffman, 1975b; Spence, et al., 1985; Zahn-Waxler, et al., 1992) 대부분이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에 따른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학자 Parsons와 Bales(1955)는 남녀행동의 차이를 전통적 역할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였다. 남성은 가족 부양 정치 경제의 운영 가정과 사회의 연결에 이바지하는 도구적(instrumental)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감 보다는 문제해결의 방향을 택하고, 여성은 가족간의 조화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표현적(expressive) 역할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반응하는 공감 동정 친절과 같은 감정적이고 대인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 되었다. Bakan(1966)도 유사하게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두 기본 양식으로 구분하여, 동인(agency)은 개인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자기 주장과 자기 보호를 중시하고, 관계(communion)는 개인간의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 의존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양식은 남성적 여성적 사회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이론에서도 공감의 성차와 관련을 찾을 수 있다. Freud(1925, 1961)는 여성이 에디푸스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자아와 초자아의 발달 부진으로 합리적 원칙 보다는 감정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성차에 관한 지각은 사회계층이나 인종에 무관하게 그리고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Spence, et al., 1985). 또한 남자들이나 여자들 자신도 스스로 도구적 표현적으로 평가하며 이 경향은 유치원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Bem, 1974 ;

Hall & Halberstadt, 1980).

그러므로 여성의 공감은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 의한 양육방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Zahn-Waxler, et al., 1992; Eisenberg, 1989; Hoffman, 1975c). 여성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감정에 주목하고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도록 조장되며(Eisenberg, 1989; Lennon & Eisenberg, 1987) 남아에게는 지나친 자극과 흥분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 표현의 폭이 제한된다(Trotter, 1983). 따라서 여아는 음성 얼굴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 훨씬 민감하고(Murphy, 1986),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는 시간이 많아 신체적 단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이혜성, 1989), 감정 표현을 덜 억제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표시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Hoffman, 1977; Kaplan, 1989). 그리고 여성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해석하는 능력이 높고(Eisenberg & Lennon, 1983)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Hoffman, 1977a) 공감 반응을 유발하기 용이하다. 게다가 모녀간의 동일시 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특징을 이루는 배려의 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Noddings, 1984). Hoffman(1977a)은 여성의 공감이 높은 것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이 초래한 경우에 공감적 고통과 함께 죄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 때문이라고 하였다. Wise와 Cramer(1988)도 여성은 공감 검사의 한 요인인 개인적 고통의 점수가 높아 타인의 고통에 불안과 불편을 느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남성은 고통과 감정 표현의 억제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타인과의 순간적 융화에 곤란을 느낌으로 공감 반응의 위축을 가져온다(Goldstein & Michaels, 1983). Lenrow(1965)는 자신의 고통을 울음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아동이 그 표현을 억제하고 용감하게 처신하는 아동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적으로 반응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공감의 측정 방법

공감의 인지적 정의적 구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은 그 성질이 복잡하여 개념상의 혼란과 그에 따른 측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Gladstein (1983)은 공감의 객관적 측정의 시도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였다. Greenson (1967)도 공감은 타인의 감정의 질을 공유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전의식적 현상이라고 그 미묘한 측면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를 위해서는 측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감 측정 방법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공감을 양적 속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생리적 신체적 언어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Hoffman, 1982).

생리적 지수 : 여기에는 피부전기반응(skin conductance), 심박(heart rate), 발한반응(palmar-sweating), 피부 온도, 혈관 수축(vasoconstriction), 근전도(electromyogram) 등에 의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성인에게 이용되며 정서의 야기 유무와 강도의 증거를 직접 제시하는데 이상적이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 정확성이 결여되고 정서의 질과 방향을 알 수가 없다(Goldstein & Michaels, 1985).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부전기반응은 타인의 고통을 보았을 때 증가하지만 경악이나 공포시에도 일어난다. 울음소리에 대한 심박의 증가는 부정적 정서나 고통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부 상황에 주목할 때에는 심박이 약해진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공감적 정서의 강도가 낮다면 인지적 차원이 우세한 것이므로 심박은 낮아지며, 강도가 높다면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것이므로 심박은 가속된다. 또한 공감의 유형에서 인지가 중심 역할을 할 때, 즉 역할 채택의 경우에 심박은 낮아지고 초보적인 유형의 공감에서는 심박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경우 심박은 증가하고, 성인의 경우 심박은 낮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

나 실용적 의미에서 심박 변화의 방향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경향은 심박의 변화(방향과는 무관하게)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피부전기반응과 안면 표정에 의한 정서 관찰의 정확성은 역상관을 보인다. 피부전기반응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은 안면 표정으로서는 정서 표현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정서 표현을 억제하도록 요구받은 아동은 나중에는 공공연한 표현을 억제하게 되지만 내밀히(생리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는 정서의 생리적 지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리적 방법은 어떤 사태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정확히 변별하기 어렵고, 실험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자극이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isenberg, et al., 1987). 실험 장치의 조작이 어렵고 실수도 가능하며 아동의 경우에는 실험 장치에 의한 행동제약 또는 공포가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Hoffman(1977)은 실험자와 피험자의 성이 일치되면 남자의 피부전도 반응이 더 높고 관찰자와 피험자의 유사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감의 생리적 지수의 타당도에 대한 증거는 많다. 직관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생리적 반응은 공감 반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부전기반응의 증가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일반적 경향과 상관이 있으며, 타인의 고통을 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은 회생자를 구하려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ffman, 1982).

신체적 지수 : 여기에는 안면 표정, 자세, 음성 등이 포함되며, 생리적 지수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이고 개인의 언어 능력 사회적 평가에 대한 의식 자기 표현의 편파성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생리적 지수와는 달리 신체적 지수는 정서의 종류를 변별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안면 표정은 꽤 불쾌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기 때문에 그 강도와 동작(얼굴을 가리거나 돌림)을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이타심과의 타당도도 높게 나타난다(Goldstein & Michaels, 1985).

그러나 안면 표정은 공개적이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보상과 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Hoffman, 1982). 또한 안면 표정은 성차를 보여 남자가 공포 반응을 덜 보이고, 남성 실험자 앞에서는 남아의 자발적 정서 표현이 어려우며, 신체적 표현을 억제하는 사람에게도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cus, 1987). 그렇지만 Hoffman(1982)은 정서의 강도와 방향에 따른 측정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정서 변화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안면 표정에 의한 지수라고 주장하였다.

언어적 지수: 여기에는 공감의 정도를 자기 보고 또는 타인의 평정에 의해서 나타내는 지필 검사와 그림 이야기 검사가 포함된다.

Cottrell(1942)의 영향을 받은 Dymond(1949, 1950)는 처음으로 역할채택으로서의 공감도 검사(Rating Test of Insight and Empathy)를 개발하였다. 이는 주로 인지적 역할채택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상황이나 특성을 다루고 있다. 이 검사는 우월감 지도성 친절 자신감 이기심 유모어의 6개 특성을 자신과 타인의 평가 방식에 대한 지각에 따라 4부분으로 나누어 5단계 평정을 하게 되어 있다. 공감 점수는 피험자 자신의 평정과 다른 피험자의 평정간 일치도로 산출된다. 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검사의 반분 신뢰도는 .82이었고, 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은 지능 검사의 동작 검사에서, 검사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언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공감 점수가 높은 집단은 외향적 낙천적 온정적으로, 공감 점수가 낮은 집단은 이와 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의 소요시간은 2시간 이상이며, 문화적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고, 타당도도 분명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 과정의 객관적 독립적 판단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는 Truax와 Carkhuff(1967)가 개발하고 Carkhuff(1969)가 수정한 공감척도(Accurate Empathy Scale)이다. 이 검사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전하는 능력을 9단계(나중에 5단계로 축소됨)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흔히 상담과정의 일부(2-10분)를 녹음 녹화한 자료를 제3자가 평정한다.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평가하는 것으로는 Barrett-Lennard(1962)의 관계검사(Relationship Inventory)를 들 수 있다. 이 검사는 Truax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상담의 필요충분조건에 관한 Rogers(1957)의 이론을 토대로 상담자의 존중 공감적 이해·관여·일치성의 4요인에 대하여 내담자가 경험한 상태를 측정하는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반분 신뢰도($n=42$)는 4요인에 따라 .82-.9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담자의 주관적 평가는 그의 정신 상태의 불안정으로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다.

Kerr와 Speroff(1954)는 공감이 높은 사람이 타인의 반응을 잘 예측하리라는 가정하에 상업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지적 요인의 공감 검사(Empathy Test)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특정 직업인(생산직이나 사무직)에게 인기있는 15유형의 음악, 일반인이 좋아하는 15개의 잡지, 성인들을 귀찮게 하는 10개 사항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채점은 전국 표준과의 반응 차이로 이루어 진다. 검사 점수는 남자 95명의 지도성과 .62의 상관을, 자동차 판매원의 판매 기록과 .44의 상관을 보였다. 10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검사 신뢰도는 .67이었고 동형검사 신뢰도는 .83이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안면 타당도가 거의 없고 연구 결과에서도 타당도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능력인 사회적 지능 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검사의 하나로 1925년 이래 여러 유형이 개발된 Washington의 사회적 지능검사(Social Intelligence Test)는 사회적 상황판단 인물 기억 인간행동의 관찰 언어 이면의 정신상태 유모어 감각의 5가지 영역에 따른 4지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Chlopan, et al., 1985). 이 검사의 점수는 판매원 98명의 대인관계 능력과 .61의 상관을, 교사나 동료의 대인관계 능력 평가와 .40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 지능검사와 .50-.70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이 검사는 주로 이해력을 측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hapin(1942)의 사회적 통찰검사(Social Insight Test)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의 조정을 위한 특수한 자극(유모어 등)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례기록 소설 사회적 태도 검사 등에서 추출된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사회적 상황에 가장 좋은 행동양식을 4가지 대안 중 선택하게 되어 있다. 사회사업기관 종사자의 검사 점수와 사회적 통찰 평정 점수는 .21의 상관을 보였고, Gough(1965)가 조사한 직업 교육수준이 다양한 10개 집단의 사회적 통찰 점수의 순위도 상식적인 기대와 일치되었다. 즉 은행 임원과 대학원생 등의 점수가 높고, 군인과 고교생의 점수가 낮았다. 고득점자는 대인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기민하며 환경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저득점자는 이와 반대로 평가되었다. 이는 검사의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능 검사와 .36의 상관을 보여 사회적 통찰과 지적 능력간에는 연관이 있음이 분명하다(Gough, 1965).

Hogan(1969, 1975)은 공감을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1969)으로 정의한 후, 기존 성격검사(CPI, MMPI)의 문항에서 공감의 평정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반응을 비교하여 선정한 64개 문항으

로 공감 검사(Empathy Scale)를 구성하였다. 후에 39문항으로 된 축소형도 개발되었으며 원 검사와의 상관은 .90이었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대인관계에서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사회적 통찰 검사와 상관을 냈고(.58), 공감이 높다고 판단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사의 평정 점수와 상관도 밝혔다(.40).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2개월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는 .84이었고, 장교를 대상으로 한 내적합치도 계수는 .71이었다. 이 검사에 의해 공감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적응을 잘 하며 불안과는 역상관(-.36)을 보이고, 외향적이며 대인관계 기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감이 낮은 사람은 도덕성 점수가 낮고, 비행집단이나 아동학대의 어머니도 공감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에 기술된 검사는 모두가 공감의 인지적 요소를 위주로 한 성인용 검사이다. 그러므로 Mehrabian과 Epstein(1972)은 정의적 요인을 중시한 검사(Emotional Empathy)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공감을 타인의 지각된 정서적 경험에 대한 대리적 정서반응으로 규정하고 5개 요소에 따라 33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5개 하위요소는 외면적 행동의 단서(타인의 웃음이나 울음), 낮은 사람의 감정이해(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 내면적 정서 상태(소설의 주인공이나 고통받는 사람), 일반적인 정서적 분위기(주변의 흥분), 동정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9단계 평정척도로 기술된 각 문항은 사회적 평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요인분석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하위요소간의 상호 상관은 .34-.70이었고, 각 문항과 총점과의 상관은 .70-.89이었다(Adams, et al., 1979).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8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공감이 높은 학생은 공격행동을 적게 보였으며, 81명의 여대생의 공감은 원조행위와 긍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공감은 언어능력이나 지

능 독해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Bryant, 1987b).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79이었고, 반분 신뢰도는 .84, 2주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는 .85이었다. 그러나 이 검사의 측정의도는 정의적 공감이지만 사실상 성격특성을 재는 정의적 역할채택검사로, 어떤 상황에서 정서적 행동에 반응하는 정도를 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을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반응을 반영하는 것이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 기대나 자기표현 의욕과 혼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Goldstein & Michaels, 1985). 공감의 성차의 원인도 여기에 기인할 수 있다(Batson, 1987). Bryant(1982)는 이 검사를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수정하여 22문항을 개작하였고, 아동용은 9단계가 아닌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케 하였다. 수정된 검사의 계수는 .54-.79, 2주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는 .74-.83이었고, 원 검사와의 상관은 .54, 변별적 타당도로서 사회적 평가와는 .08-.16이었다.

Hogan과 Mehrabian의 검사는 타당도가 높은 검사이지만 양자의 상관은 낮아서 전자는 인지적, 후자는 정의적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Davis(1983)는 이 두 요인을 합한 대인반응검사(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제작하였다. 타인의 관점 채택 척도와 허구적 장면의 인물과 동일시하는 경향인 환상 척도로 인지적 요소는 양분되었고, 정의적 요소는 타인에 대한 동정 연민, 온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공감적 관심의 척도와 타인의 고통에서 기인되는 불안과 불편을 의미하는 개인적 고통의 척도로 구분되었다. 이 4영역별 7개 문항씩으로 구성된 이 검사의 계수는 .70-.78, 2개월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는 남자가 .61-.69, 여자가 .62-.81이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검사로는 정의적 요소를 위주로 하여 그림 이야기의 형태를 취하는 개인용 검사들이 있다. Feshbach와 Roe(1968)의 정서적

상황 검사(Affective Situation Test for Empathy)는 4가지 감정에 관한 각 2종의 짧은 이야기를 각 3장면으로 된 그림이나 슬라이드로 제시 후 아동의 느낌이 그림의 감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각 이야기당 0-2점의 배점을 함으로써 이야기 주인공의 감정추론과 그에 대한 대리적 정서반응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4가지 감정은 생일파티와 TV가창시합에 관한 기쁨, 강아지의 분실과 다리 부상으로 소풍에 불참하게 된 슬픔, 무서운 개에 쫓기거나 밤에 길을 잃은 공포, 장난감을 빼앗기거나 누명으로 인한 분노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동의 성과 일치되게 제시되며 상황 설명시에 감정적 어조는 배제되고, 한 이야기가 끝난 후 간단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전 감정의 영향을 방지하게 되어 있다.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검사의 1주 간격 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84이었고 남자는 .74, 여자는 .89로 나타났다(Feshbach, 1978). 그러나 이검사의 반응은 정서의 공유보다는 장면의 친숙성 여부와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반영할 수 있고(Shantz, 1975), 검사자의 성이나 친숙성이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 판단과 의사전달 과정에서 정의적 요인 이외에 지적 능력이나 기대 추리력 등의 인지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Goldstein & Michaels, 1985). 또 아동이 자기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감정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Strayer, 1987b). 뿐만 아니라 이 검사는 공감적 정서의 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야기에 따라 정서가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있다(Hoffman, 1982). 홍화진(1987)은 90명의 아동에게 이 검사를 실시하여 평정자간의 신뢰도가 .92, 공감과 증여의 상관이 .38, 분배와는 .52의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공감수준은 높아지나 성차는 없다고 하였다. Feshbach(1982)는 자신의 검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검사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보다 실생활에 가깝게 장면을 제시하고 비디오를 이용하여 소집단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정된 검사에는 정서의 종류도 한 가지(자부심) 추가되었으며, 아동의 느낌의 종류와 정도를 언어나 9단계 척도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Borke(1971)는 Feshbach의 검사와 유사한 유아용 대인지각검사(Interpersonal Awareness Test)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Feshbach검사의 4가지 정서를 유발하는 일반적 상황을 기술한 11종의 이야기와 다른 아동에게 이와 같은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피험자의 행동에 관한 12종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방법은 먼저 아동에게 4가지 정서를 나타내는 얼굴표정의 그림을 제시하여 확인시킨 후,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얼굴표정이 없는 아동의 그림에 어떤 표정의 얼굴이 가장 적합한지 선택케 하는 것이다. 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방 법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각 100명으로 한정하고, 서울의 사립대학 1개교와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주립대학 1개교를 선정하였다. 두 대학은 규모와 수준에서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상학생은 교육학 또는 심리학 강좌의 수강생들이었다. 조사지의 회수율은 한국 학생의 경우

80%, 캐나다 학생은 40%이었다. 회수된 자료 중에서 반응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것은 제외되었고, 캐나다 학생의 경우 30세 이상의 자료도 제외되었다. 이는 두 집단의 연령층을 비슷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된 대상은 한국 60명, 캐나다 32명으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두 집단의 표집수는 남자의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연령은 21세로 비슷하지만 캐나다 학생의 경우에 개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는 다르게 캐나다 대학생의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도구

공감 검사: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적 이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는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의적 공감 검사이었다. 이 검사를 택한 이유는 앞에서 검토한 11종의 언어적 기술에 의한 공감 검사 중에서 성인용으로서 타당도가 높고 우편조사 실시에 적합하며 본 연구에서 취한 공감의 개념과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학생에게는 원 검사를, 한국 학생에게는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의 33개 문항내용은 부록 1과 같다.

이 검사의 33개 문항 중 18개 문항은 부정적 진술문이며 동의의 정도에 따라 9단계 평정을 하게 되어있다. 즉, 검사 문항의 내용에 매우 동의하면 9점, 매우 반대하면 1점을 부여하고 부정적 진술문은 이와 반대로 점수 부여를 한다. 그러므로 공

표 1. 표집수 및 평균연령

성별	한 국			캐 나 다		
	n	연 령		n	연 령	
		M	SD		M	SD
남	30	22.14	2.38	12	21.05	4.23
여	30	20.90	1.23	20	20.02	3.02
계	60	21.52	1.97	32	20.41	3.49

감 점수의 범위는 33-29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검사의 신뢰도는 α 계수로 산출되었는데 한국 남학생은 .71, 여학생은 .77, 캐나다 학생은 남녀 각 .82와 .74이었다. 이는 원 검사의 신뢰도 계수 .84보다 다소 낮은 것이었다.

부모의 양육검사 방식 :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 행동에 관한 부모 자신의 보고와 자녀의 보고가 대체로 일치되지만 부모의 반응이 사회적 승인의 방향으로 의곡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의 반응이 보다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녀의 행동에 보다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Thomas, et al., 1974). 이와 같은 취지에 알맞는 부모 행동에 관한 검사는 Schaefer와 Bell(1958)의 부모태도검사(Parent Attitude Research Instrument)가 있으나, 이 검사는 부모 행동에 대한 보고라기 보다는 부모의 의도와 사고에 대한 지각에 비중을 두고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Cornell 부모행동 기술척도(The Cornell Parent Behavior Description)의 간이형(Thomas, et al., 1974)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부모의 행동을 통제(control)와 지지(support)의 두 차원에 따라 자녀의 지각을 측정하는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된 5단계 평정척이다. 문항은 부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긍정적 진

술문으로 되어 있으며 행동의 빈도에 따라 1점("전혀 없음")에서 5점("매우 자주")까지 부여된다.

그러므로 점수의 범위는 두 차원 각각 4-20점이다.

Thomas 등(1974)은 미국 여고생(n=20)을 대상으로 한 2주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와 문항내적 합치도를 표 2와 같이 산출하였으며, KR-21에 의한 내적 합치도계수는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두 유형의 신뢰도 계수에서 모두 아버지 척도가 어머니보다, 지지의 차원이 통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와 계수가, 캐나다 학생의 경우에는 계수만 산출되었다. 두 집단 모두 신뢰도 계수는 미국 자료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 척도와 행동 차원에 따른 신뢰도 계수의 차이는 미국 자료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절차

몇 가지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을 첨가한 검사도구는 대상학교에서 담당교수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방과 후 기입하여 다음 날 제출하도록 하였다. 부모 행동에 관한 검사는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기억을 상기하여 반응하도록 검사지 배부시에 담당교수가 강조하였다. 수집된 검사지는 연구자에게 우송되었다.

표 2. 부모의 양육방식 검사의 신뢰도 계수

양육방식	미국(Thomas et al., 1974)		한 국			캐 나 다	
	재검사	KR-21	재검사 전체	α 계수		α 계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통제	62	34	75	61	58	79	76
부 지지	80	50	83	72	79	89	84
모 통제	59	27	65	55	69	63	57
지지	75	42	86	72	77	74	86

주 : 상관계수의 소수점은 생략됨.

결 과

공감 검사점수의 비교는 2원(국가×성) 변량분석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러났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각점수는 부모의 행동 차원에 따라 2원(국가×성) 변량분석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각은 부모의 통제와

표 3. 국가별, 성별 공감점수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한 국			캐 나 다		
	남	여	계	남	여	계
M	194.20	204.47	193.33	193.33	221.85	211.16
SD	18.47	19.57	19.56	23.35	17.38	23.99

표 4. 국가별, 성별 공감점수의 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df	변량추정치	F
국가	1967.29	1	1967.29	5.29*
성	6014.76	1	6014.76	16.17***
상호작용	1665.31	1	1665.31	4.48*
집단내	32739.48	88	372.04	
전체	43336.73	91		

* $p < .05$ *** $p < .001$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 점수는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F(1, 88)=5.29, p < .05$), 상관비는 .06이었다. 즉,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 점수가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 집단간 차이가 전체 점수의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이었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점수 차이도 유의있게 나타났다으며($F(1, 88)=16.17, p < .01$), 상관비는 .16이었다. 두 집단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감수준이 낮았으며, 성차는 공감점수 변량의 16%를 차지하였다.

두 집단과 성의 상호작용도 유의있게 나타났다($F(1, 88)=4.48, p < .05$). 공감 점수의 성차는 한국보다 캐나다 대학생의 집단에서 더 현저하게 드

지지 차원에서 국가간 차이만 유의있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통제와 지지, 어머니의 통제와 지지는 한국 대학생보다 캐나다 대학생이 한결같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간의 차이는 어머니의 지지 차원에서 가장 현저하며, 점수 변량의 25%를 설명하고 있다. 즉, 캐나다 대학생 집단이 한국 학생보다 부모로부터 통제와 지지를 더 받았던 것으로 지각하며, 특히 어머니의 지지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남녀의 지각 차이는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 집단에서 모두 유의있게 나타나 Thomas 등(1974)의 미국 고교생과 대학생들($n=2558$)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부모에게서

표 5. 국가별, 성별 부모의 양육방식 점수의 평균치와 변량분석 요약

양육방식	한 국			캐 나 다			F (국가간)
	남	여	계	남	여	계	
아버지의 통제							
M	13.80	13.13	13.47	15.58	14.65	15.00	6.01*
SD	2.86	2.83	2.84	3.55	3.17	3.29	
아버지의 지지							
M	12.13	13.07	12.60	14.92	15.40	15.22	12.49***
SD	2.70	3.13	2.94	4.38	3.36	3.71	
어머니의 통제							
M	13.27	14.60	13.93	15.92	15.85	15.88	10.63**
SD	2.78	2.67	2.78	1.62	2.43	2.14	
어머니의 지지							
M	12.67	14.50	13.58	17.33	16.95	17.09	29.11***
SD	2.90	2.81	1.67	3.27	2.75		

df = 1,88 * $p < .05$ ** $p < .01$ *** $p < .001$

남학생이 통제를, 여학생이 지지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로부터 통제와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보여, 가정에서 어머니의 관여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homas 등(1974)의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들은 미국 고교생과 대학생 집단의 어머니에 지각 점수에서 지지차원의 평균치가 15.2, 통제차원의 평균치는 15.4이고, 아버지의 지지차원의 평균치가 14.4, 통제의 평균치는 14.9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의 공감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검사 점수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대체로 아버지의 행동은 공감과 상관이 없으나 통제 차원이 남학생의 공감과 상관을 보였다($r = .54$).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통제와 지지 차원에서 모두 공감과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지만 역시 남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42$). 그러므로 부모의 통

표 6. 공감과 부모의 양육방식의 국가별, 성별 상관계수

양육방식		한 국			캐 나 다		
		남	여	계	남	여	계
부 모	통제	54**	02	21	52	29	24
	지지	13	05	12	47	45*	41*
	통제	42*	07	29*	-50	-08	-18
	지지	42*	11	32**	29	35	21

주: 상관계수의 소수점은 생략됨.

* $p < .05$ ** $p < .01$

제와 어머니의 지지는 남학생의 공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행동은 여학생의 공감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지지와 여학생의 공감에서만 유의있는 상관($r=.45$)을 보였다.

논 의

앞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를 캐나다와 한국 대학생의 공감차이, 공감의 성차, 공감과 부모의 행동의 순으로 논의한다.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 차이

두 집단의 공감 점수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이 한국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그 이유를 고찰할 수 있겠으나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나 습관 등의 사회적인 요인과 문화적 규준이 아동의 특성 육구에 관한 부모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 신념이 아동 양육방식에 작용하여(Bornstein, et al., 1992 ; Tronick, Morelli & Ivey, 1992) 자녀의 공감 발달을 촉진 또는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4명의 그리스 아동과 46명의 미국 아동의 공감을 비교한 Roe(1971)는 그리스 아동의 공감이 낮은 이유를 그리스 아동의 어머니들이 엄하고 수치심과 경쟁을 조장하는 훈육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권위주장적 훈육방식과 경쟁심 장려가 공감 발달과 부정적 상관이 있다는 여러 연구자들(Feshbach, 1975 ; Hoffman, 1970 ; Hoffman & Saltzstein, 1967)의 주장과 합치된다.

캐나다의 문화나 육아방식을 연구한 자료는 찾

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거의 동일한 미국의 자료와 비교해 본다면, 미국의 부모는 어릴 때부터 독립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으므로(김현덕, 1992 ; Conroy, et al., 1980) 캐나다의 부모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이 영향을 받은 자녀양육 방식은 복미주와는 대조적으로 공감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김태길, 1982 ; 김현덕, 1992 ; 손인수, 1978 ; 이영호, 1975 ; 최재석, 1976)은 한국인의 중요한 의식과 가치관이 가족주의라는데 합의하고 있다. 이는 혈연관계와 가족윤리를 인류의 근본으로 숭상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온정주의와 권위주의적 태도까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기 보다는 권위주의적이며(이영호, 1975 ; 김현덕, 1992), 대학생들의 애타주의적 사상이 강하다(김태길, 1976)는 것도 좁은 범위에 국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따뜻한 인간애와 인정은 “우리 끼리” 주고 받는 것이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예절 도덕이 강조되지만(김현덕, 1992), 그 근거를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찾으며(김태길, 1982), 의무의식도 집안에서만 강하고 밖에서는 전면에 크게 나서지 않는다(윤택림, 1964). 이론상으로는 이를 믿지 않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을 여러 면에서 엿볼 수 있다. 오세철(1982)은 한국인의 돕는 행위와 방관자 수가 증가할수록 지연되어 이타행위의 이면에는 체면의식이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홍승직(1972)은 한국인의 단점으로 이기적 사고와 상호 이해 부족을 많은 지식인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상호(1993)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호주의 한국교도들이 현지인에 비해 공중도덕 공감 등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구조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인 2,000여명을 조사한 김재은(1987)의 연구에 의하면, 30% 이상이 무엇이든 “내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일은 최우선으로 처리하려고 하며, 70% 정도가 친구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지만 자신의 일에 남이 참견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관심 영역에는 자기가 참여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성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관찰하거나 타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약하다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세계 11개국 청소년의 의식을 조사한 한국꺄론평조사연구소(1984, 1985)의 결과를 보면, 가족의 물이해로 가정생활에 불만을 토로한 비율이 미국(17%)이나 영국(28%)에 비해 한국이 높았으며(35%), 길 잃은 사람을 돕겠다고 한 비율이 미국(59%)이나 영국(46%)에 비해 한국이 낮게(38%)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은 대부분이(64%) 타인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인간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신은 것처럼 적극 나서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의 유아방식에 관한 조사에서도 한국 대학생의 공감이 낮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불우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공중도덕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기적 행동을 제지하지만 이를 실천한 후의 느낌에 대하여 자녀와 함께 얘기하지는 않으며, 위반해도 관대하게 대함으로써(김옥기, 김광웅, 1983; 송병순, 여중철, 1983; 이은화, 이경우, 1987) 타인 이해를 고취하는 일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어머니들의 아동양육 방식은 구미의 어머니들과 비교할때 더욱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국꺄론평조사연구소, 1980, 1983).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는 경우는 미국(80%)이나 영국(82%)보다 훨씬 부족하며(58%), 가정교육에서 생활습관과 예절을 중시하는 반면에 공중도덕(미국 66%, 영국

60%, 한국 14%)과 관용성(미국 77%, 영국 72%, 한국 19%)은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 차이는 한국인의 감정 표현 억제 경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모자간의 애착이 강하여 감정에 대한 상호 민감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김현덕, 1992), 유교적 특성으로 그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윤태림, 1971; 최재석, 1976). 이규태(1983)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에는 소수와 선택적으로 접촉하려는 은폐의식 때문에 정보전달 회로를 극소화하고 감정 표현을 억제한다고 분석하였고, 오세철(1982)도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언어적 신체적 표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중을 은폐하고 의사소통에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 성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재은(1987)은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응답자의 52%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그 내색을 잘하지 않으며, 59%는 감정을 남에게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감의 성차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공감 점수는 남녀간에 모두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보더라도 공감의 성차는 분명하였으며, Hall(1978)이 개관한 61종의 연구에서도 84%는 여성의 공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문화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여성적 특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74%와 여자의 83%도 여성이 타인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재은, 1987).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대하여(Block, 1976), 여아에게는 타인에 대한 배

려와 감정표현을 강화하고(Feshbach, 1978) 귀납적인 훈육과 애정을 남아보다 더 많이 받는다(Mussen & Eisenberg, 1977). 따라서 여성은 성인이 됨에 따라 남성보다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더 표현적이 된다(Minton & Schneider, 1980). 또한 여성은 타인의 욕구와 정서에 남성보다 민감하고(Hoyenga & Hoyenga, 1979), 안면표정이나 어조와 같은 시·청각적 단서의 해독에 유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Eisenberg & Lennon, 1983). 이와는 반대로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공격적이므로(Maccoby & Jacklin, 1974) 부모의 권위주장적 양육방식에 대항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공감발달의 저해를 초래한다(Hoffman, 1970). 공감의 성차에 관해서는 앞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Mehrabian과 Epstein (1972)의 정의적 공감 검사와 같이 자기 보고 방식에서는 정서의 실제적 경험이 표현의욕과 혼합될 가능성(Bryant, 1982)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공감

발달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을 흔히 예언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ichman, et al., 1992). 공감의 경우에 자녀의 감정과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는 부모의 온정과 이를 토대로 한 합리적 설득 및 분명한 기준설정, 즉 부모의 통제와 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Feshbach(1974), Hoffman(1970), Maccoby(1980), Roe(1977)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상세히 검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학생의 공감과 부모의 통제 및 어머니의 지지가, 그리고 캐나다 여학생의 공감과 아버지의 지지가 긍정적 상관관을 보였고, 그 밖의 변인간에는 유의있는 상관이 나타

나지 않았다. 즉, 부모의 통제와 어머니의 지지가 한국 남자 대학생의 공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지지는 캐나다 여학생의 공감 형성에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두 집단 모두 부모의 통제 및 지지와 공감의 긍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표집수와 부모의 양육방식 검사의 문항 수가 너무 적어 점수의 변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유의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표 6>에서 보면, 캐나다 남학생의 경우에 상관계수가 그 크기에 비해 유의없게 나타난 것은 이를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 검사의 두 차원이 불분명하여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의 행동차원을 합리적 통제와 지지보다는 권위주의적 수용적 등으로 그 구분이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문항 선정이 이루어졌다면 공감과의 관계가 더 잘 파악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 대학생의 공감은 캐나다 학생에 비해 낮고, 여학생의 공감이 남학생보다 두 집단에서 모두 높으며, 부모의 행동에 대한 지각은 통제와 지지 차원에서 모두 캐나다 대학생이 한국 학생보다 높지만 공감 발달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연구대상의 표집수의 제한과 회수율의 저조를 감안할 때 일반화될 수 없으며 여러가지 측면을 보완한 추후연구를 통하여 보다 명백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공감 검사의 문항은 공감행동의 직접적인 측정치가 아니라 정의적인 면에서 그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 반응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정의적 관여와 더불어 타

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적 관점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감과 같은 사회적 행동의 심리적 복잡성은 한가지 방식으로 다루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Johnson 등(1983)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공감의 다차원적 접근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어떤 유형의 검사가 공감을 가장 잘 측정하며, 어떤 문항이 공감척도의 타당도에 가장 중요한지 연구되어야 한다.

공감의 성차는 인과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것은 선천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요인의 결과이다. 남성적 여성적의 의미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합리적 감정적 또는 도구적 표현적으로 표현되는 행동 특성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연속적이지만 서로 다른 단일 행동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성적 특징이 강조되고 있는 근래의 추세에 비추어 볼때 공감의 성차를 신체적인 성(sex)이 아닌 심리적 성(gender)의 차이로 구분하여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시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감의 발달은 아동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나친 자기 관심을 억제하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 표현케 하고, 타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조장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공감에 관한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여러가지 감정을 경험 해석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동료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자연적인 사회적 상황에서의 연구가 공감을 이해하는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정 환경과의 관계는 공감 발달의 선행요인을 탐색하는데 적절하지만 공감의 기능과 다른 행동과의 관계는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보다 잘 규명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감 증진의 체계적 노력도 공감의 토대와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격적 충동적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실용적인 면에서 중요하다. Goldstein과 Michaels(1985)는 공감을 6단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각 단계별 훈련방법을 다른 여러가지 기존 방식들과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훈련 방법의 개발에 의한 공감 능력의 발전은 인류의 생존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공감의 약화는 사회적 행동 문제의 출현과 관계가 있으며 (Feshbach, 1978)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Szapocznik과 Kurtines(1993)는 발달과 관련하여 상황의 잠재성(embeddedness of contexts)이 개인 가족 사회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감의 정도는 개인의 이해력 경험 상황이해의 수단(직접경험, 구두전달, 영상관찰, 서면이해 등)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이 가미된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Smith, 1977). 공포나 분노는 공통적인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식별되겠지만 수치 자부심 질투 후회 등과 같이 복합적이고 문화와 관련된 정서는 행동표현으로 분명히 구별하기 어렵다. 자연적 표현은 자동적이고 인습에 구애받지 않지만, 인습적 표현은 감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시가 수반되고 그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아동의 공감을 비교한 Borke(1973)는 공포와 비애 장면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보다 정확한 것을 안전을 염려하여 적극적 탐색활동을 제한하는 과보호적 경향과 수치와 체면을 강조하는 문화적 영향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공감의 문화적 차이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상황과 장면을 다양하게 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비교 연구의 가치는 발달의 문화간 보편성과 아동양육 방식에서의 문화간 차이를 인식하고 한 문화권에서 관찰된 변화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Clarke-Stewart & Apfel, 1978) 인간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Tronick, 1992) 인간행동의 문화적 토대와 그 기

본 가정을 이해하는데 있다(Morelli, et al., 1992). 발달은 생물학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할 때에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문화적 소산이다. Harkness(1992)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건전한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환경의 인식이 서구 중류층의 생활양식에 입각한 발달이론을 재고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감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격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공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다. 너무 높은 것도 전혀 없는 것처럼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Hoffman과 Saltzstein(1967)은 공감과 죄의식 경험을 논하면서 공감이 지나치면 개인의 정서적 안녕에 해롭다고 하였고, Hogan(1973)도 공감이 도덕성 형성에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하였다. 공감이 높은 사람은 지나친 역할 채택으로 인하여 타인의 기대에 과민하고 적대감정을 너무 억제함으로써 가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감의 표현과 반응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운동경기나 시험과 같은 경쟁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지나친 의식과 관심은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아동의 공감을 악용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감 반응이 적절한 상황과 해로운 상황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민화·최경숙(1993). 아동의 정서 이론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6(1), 51-73.
- 김성일(1993).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성격 발달. **정신건강연구**, 한양대학교, 12, 82-109.
- 김옥기·김광웅(1983). 한국 도시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의 초기 사회화 과정 연구** (pp. 289-376). 서울 : 편자.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 김지순(1985). 아동의 정 부적 정서 및 자기 타인 지향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길(1967).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서울 : 일조각.
- 김태길(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 문음사.
- 김현덕(1992).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문화간 비교 연구. **교육학연구**, 30(2), 263-278.
- 김희태(1989). 아동의 타인 감정 추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인수(1978).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 문음사.
- 송병순·여중철(1983). 한국 농촌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의 초기 사회화 과정 연구** (pp. 195-285). 서울 : 편자.
- 오세철(1982).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 : 박영사.
- 윤태림(1964). **한국인의 성격**. 서울 :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윤태림(1971).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 현암사.
- 이규태(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 신원문화사.
- 이영호(1975).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 일지사.
- 이은화 이경우(1987). **한국 어머니의 유아 사회성 교육**.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 이혜성(역). (1989). **남녀의 행동연구**.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 차재호(1983). 국민성의 활성화 시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인의 윤리관** (pp. 322-327). 서울 : 편자.
- 최상호(1993). 한국 국민성의 문제와 개선방향. **사회교육학 연구**, 3(2), 121-138.
-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 개문

- 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0).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서울 : 저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서울 : 저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 청소년의 의식 구조. 서울 : 저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의식. 서울 : 저자.
- 홍승직(1972). 지식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 삼영사.
- 홍화진(1987). 아동의 공감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dams, G. R., Schvaneveldt, J. D., & Jenson, G. O. (1978). Sex, age and perceived competency as correlates of empathic ability in adolescence. *Adolescence*, 14, 811-818.
- Aderman, D., Brehm, S. S., & Katz, L. B. (1974). Empathic observation of an innocent victi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29, 342-347.
- Allport, F. H. (1924). *Social psychology*. Boston : Houghton Mifflin & Co.
- Alper, J. (1985). The roots of morality. *Science*, 85, 70-76.
- Archer, R. L., Diaz-Loving, R., Golluitzer, P. M., Davis, M. H., & Foushee, H. C. (1981). The role of dispositional empathy and social evaluation in the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0, 786-796.
- Aronfreed, J. (1970). The socialization of altruistic and sympathetic behavior. In J. R. Macauley & L. Berkowitz(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New York : Academic Press.
- Bakan, D. (1966). *The quality of human existence*. Boston : Beacon Press.
- Baldwin, J. M. (1906). *Social and ethical interpretations in mental development*. London : Macmillan.
- Barnett, M. A. (1987). Empathy and related responses in children.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146-16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nett, M. A., Howard, J. A., King, L. M., & Dino, G. A. (1980). Antecedents of empathy : Retrospective accounts of early socializa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6(3), 361-365.
- Barnett, M. A., Howard, J. A., King, L. M., & Dino, G. A. (1981). Helping behavior and the transfer of empath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5, 125-132.
- Barnett, M. A., King, L. M., Howard, J. A., & Dino, G. A. (1980). Empathy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6(3), 243-244.
- Barnett, M. A., Melton, E. M., Howard, J. A., & Dino, G. A. (1982). Effect of inducing sadness about self or other on helping behavior in high and low empathic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920-923.
- Barrett-Lennard, G. T. (1962). Dimensions of therapist response as causal factors in therapeutic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s*, 76, 1-33.

- Barrett-Lennard, G. T. (1981). The empathy cyc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2), 91-100.
- Batson, C. D. (1987). Self-report ratings of empathic emotion.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56-36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tson, C. D. (1989). Personal values, moral principles, and a three-path model of prosocial motivation. In N. Eisenberg, J. Reykowski & E. Staub(Eds.), *Social and moral values*(pp. 213-228).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tson, C. D., & Coke, J. S. (1981). Empathy :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In J. P. Rushton & R. M. Sorrentino(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pp. 167-187).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tson, C. D., Duncan, B. D., Ackerman, P., Buckley, T., & Birch, K. (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0(2), 290-302.
- Batson, C. D. et al. (1989). Negative-state relief and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6(6), 922-933.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1, Pt. 2).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7, pp. 3-46). Minneapolis, MN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umrind, D. (1980). New directions in socialization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7, 639-652.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lock, J. H. (1976). Assessing sex differences : Issues, problems, and pitfalls. *Merrill-Palmer Quarterly*, 22, 283-308.
-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5(2), 263-269.
- Borke, H. (1973).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between three and six years of age : A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9, 102-108.
- Bornstein, M. H. et al. (1992). Functional analysis of the contents of maternal speech to infants of 5 and 13 months in four cultures : Argentina, France, Japan, and the U. 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593-603.
- Bryan, J. H. (1972). Why children help? *Journal of Social Issues*, 28(3), 87-104.
-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Bryant, B. K. (1987a). Mental health, temperament, family, and friends.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45-27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yant, B. K. (1987b). Critique of comparable

- questionnaire methods in use to assess empathy in children and adults.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61-373).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ckley, N., Siegel, L., & Ness, S. (1979). Egocentrism,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29-330.
- Carkhuff, R. R. (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 (vols. 2). New York : Holt.
- Carkhuff, R. R. (1971).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New York : Holt.
- Caudil, W., & Plath, D. (1966). Who sleeps by whom? Parent-child involvement in urban Japanese families. *Psychiatry*, 29, 344-366.
- Chandler, M. J. (1973). Egocentrism and anti-social behavior : The assessment and training of social perspective-taking skills. *Developmental Psychology*, 9, 326-332.
- Chandler, M. J., & Greenspan, S. (1972). Er-satz egocentrism. *Developmental Psychology*, 7(2), 104-106.
- Chapin, F. S. (1942). Preliminary standardization of a social insight sca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 214-225.
- Chlopan, B. E., McCain, M. L., Carbonell, J. L., & Hagen, R. L. (1985). Empathy : Review of available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8(3), 635-653.
- Cialdini, R. B., Schaller, M., Houlihan, D., Arps, K., Fultz, J., & Beaman, A. L. (1987). Empathy-based helping: Is it selflessly or selfishly motivat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2(4), 749-758.
- Clark, K. B. (1980). Empathy : A neglected topic in psychologic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5(2), 187-190.
- Clarke-Stewart, K. A., & Apfel, N. (1978). Evaluating parental effects on child development. In L. S. Schulman (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6, pp. 47-119). Itasca, IL : F. E. Peacock.
- Conroy, M., Hess, R. D., Azuma, H., & Kas-hiwagi, K. (1980). Maternal strategies for regulating children's behavior.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2), 153-172.
- Cottrell, L. S. Jr. (1942). The analysis of situational fields in social psych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 370-382.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ekovic,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Dymond, R. F. (1949). A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empathic ab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3, 127-133.
- Dymond, R. F. (1950). Personality and empath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4, 343-352.
- Eisenberg, N. (1989). Empathy and sympathy. In W. Damon (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 (pp. 137-154). San Francisco : Jossey-Bass.
- Eisenberg, N. (1992). *The caring child*. Cambridge

- 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Fabes, R. A. (1991).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In M. S. Clark (Ed.), *Prosocial behavior* (pp. 34-61). Newbury Park, CA : Sage.
- Eisenberg, N., Fabes, R. A., Bustamante, D., & Mathy, R. M. (1987). Physiological indices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80-38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Lennon, R. (1980). Altruism and the assessment of empathy in the preschool year. *Child Development*, 51, 552-557.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 100-131.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Eisenberg, N., & Mussen, P. (1978).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85-186.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13).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ldstein, J. C., & Gladstein, G. A. (1980). A comparison of the construct validities of four measures of empathy. *Measurement & Evaluation in Guidance*, 13(1), 49-57.
- Fenichel, O. (1954).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New York : Norton.
- Feshbach, N. D. (1975). Empathy in children :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5, 25-30.
- Feshbach, N. D. (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 in children.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8, pp. 1-47). New York : Academic Press.
- Feshbach, N. D. (1979). Empathy training. In S. Feshbach & A. Fraczek (Eds.), *Aggression and behavior change* (pp. 234-249). New York : Praeger.
- Feshbach, N. D. (1982).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social behavior in children.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315-338). New York : Academic Press.
- Feshbach, N. 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 / 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71-291).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shbach, N. D. & Roe, K. (1968). Empathy in six and seven year olds. *Child Development*, 39, 133-145.
- Feshbach, S. (1974).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aggression : Some research gaps and a proposed cognitive research. In J. de Wit & W. W. Hartup (Eds.), *Determinants and origins of aggressive behavior*. Hague : Mouton Press.
- Freud, S. (1949).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New York : Norton.
- Freud, S. (1950).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New York : Bantam. (Original work published 1921).

- Freud, S. (1961). Some psychical consequences of the anatomical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In J. Strachey (Ed.),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9). London :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5).
- Fultz, J., Batson, C. D., Fortenbach, V. A., McCarthy, P. M., & Varney, L. L.(1986). Social evaluation and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0(4), 761-769.
- Gladstein, G. A. (1983). Understanding empathy : Integrating counseling,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4), 467-482.
- Goldstein, A. P., & Michaels, G. Y. (1985). *Empathy : Development, training, and consequences*.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oldon, T. (1976). *P.E.T. in action*. New York : Wyden.
- Gough, H. G. (1965).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pin Insight Test. *Psychological Reports*, 17, 355-368.
- Greenson, P. R. (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Vol. 1).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Hackney, H. (1978). The evolution of empathy. *Personnel & Guidance Journal*, 57, 14-18.
- Hall, J. A. (1978). Gender effects in decoding nonverbal cues. *Psychological Bulletin*, 85, 845-857.
- Hall, J. A., & Halberstadt, A. G. (1980).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70-280.
- Halverson, C. F. (1988). Remembering your parents : Reflections on the retrospective method. *Journal of Personality*, 56, 434-443.
- Harkness, S. (1992). Cross-cultural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A sample of the state of the art.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 622-625.
- Hoffman, M. L. (1970). Conscience,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technique. *Human Development*, 13, 90-126.
- Hoffman, M. L. (1975a). Moral development. In P.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development* (Vol. 2). New York : Wiley.
- Hoffman, M. L. (1975b).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07-622.
- Hoffman, M. L. (1975c). Sex differences in moral internalization and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2(4), 720-729.
- Hoffman, M. L. (1976). Empathy, role-taking, guilt, and development of altruistic motives. In L.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Hoffman, M. L. (1977a).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84(4), 712-722.
- Hoffman, M. L. (1977b). Empathy, its development and prosocial implications. In C. B. Keasey(Ed.), *Nebraska symposium on*

- motivation* (Vol. 25, pp. 169-218). Lincoln, NE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offman, M. L. (1979).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feeling, and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10, 958-966.
- Hoffman, M. L. (1981).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0(1), 121-137.
- Hoffman, M. L. (1982a).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281-313). New York : Academic Press.
- Hoffman, M. L. (1982b). The measurement of empathy. In C. E. Izard (Ed.), *Measuring emotions in infants and children* (pp. 279-296).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e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47-8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89). Empathy and prosocial activism. In N. Eisenberg, J. Reyskowski & E. Staub (Eds.), *Social and moral values* (pp. 65-85).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ffman, M. L. & Levine, L. E. (1976). Early sex differences in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12, 557-558.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 45-57.
-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33, 307-316.
- Hogan, R. (1973). Moral conduct and moral character. *Psychological Bulletin*, 79, 217-232.
- Hogan, R. (1975). Empathy : A conceptual and psychometric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14-18.
- Hoyenga, K. B., & Hoyenga, K. T. (1979). *The question of sex differences*. Boston : Little, Brown & Co.
- Hughes, R., Tingle, B. A., & Sawin, D. 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22-128.
- Hunsdahl, J. B. (1967). Concerning empathy : A concept analysis of its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3(2), 180-191.
- Iannotti, R. J. (1978). Effect of role-taking experiences on role-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19-124.
- Jensen, L., Perry, C., Adams, G., & Gaynard, L. (1981). Maternal behavior and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48, 879-884.
- Johnson, J. A., Cheek, J. M., & Smither, R. (1983). The structure of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5, 1299-1312.
- Kagan, J., & Lamb, S. (Eds.). (1987).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plan, E. A. (1989). Women, morality, and

- social change from a discourse analysis perspective. In N. Eisenberg, J. Reykowski, & E. Staub (Eds.), *Social and moral values*(pp. 347-36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atz, R. L. (1963). *Empathy: Its nature and uses*. London : Free Press of Glencoe.
- Kerr, W. A., & Speroff, B. J. (1954). Validation and evaluation of the empathy test.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50, 269-276.
- Koestner, R., Franz, C., & Weinberger, J. (1990). The family origins of empathic concern : A 2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8(4), 709-717.
- Kohlberg, L. (1969). State and sequences : The cognitive development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 Rand McNally.
- Kohut, H. (1978). *The search for the self*(Vol. 2).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ebs, D. L.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Kurdek, L. A., & Rodgon, M. M. (1975). Perceptual,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n kindergarten through sixth grad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43-650.
- Lennon, R., & Eisenberg, N. (1987).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empathy and sy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 195-217).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nrow, P. B. (1965). Studies of sympathy. In S. S. Tomkins & C. E. Izard (Eds.), *Affect, cogni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Springer.
- Luchins, A. S. (1957). A variational approach to empath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 11-18.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Maccoby, E. E. (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 An historical ov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06-1017.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 Wiley.
- Marcus, R. F. (1987). Somatic indices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74-37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ks, S. E., & Tolsma, R. J. (1986). Empathy research :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Psychotherapy*, 23(1), 4-20.
- Matthews, K. A., Batson, C. D., Horn, J., & Rosenman, R. H. (1981). The heritability of empathic concern for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49(3), 237-247.

- McDougall, W. (1908).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London : Methuen.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 /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24-334.
- Miller, P. A., Eisenberg, N., Fabes, R. A., Shell, R., & Gular, S. (1989). Mother's emotional arousal as a moderator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pathy. In N. Eisenberg(Ed.), *Empathy and related emotional responses* (pp. 65-83). San Francisco : Jossey-Bass.
- Minton, H. L., & Schneider, F. W. (1980). *Differential psychology*. Monterey, CA : Brooks /Cole.
- Morelli, G. A., Rogoff, B., Oppenheim, D., & Goldsmith, D. (1992). Cultural variation in infants' sleeping arrangements : Questions of indepen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04-613.
- Munroe, R. L., Munroe, R. H., & Whiting, J. W. (1981). Male sex role resolutions. In R. H. Munroe, R. L. Munroe, & B. B. Whiting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human development* (pp. 611-632). New York : Garland.
- Murphy, C. (1986). Men and women : How different are they? In H. E. Fitzgerald & M. G. Walraven (Eds.), *Human development* (pp. 246-250). Guilford, CT : Dushkin Pub.
- Mussen, P., & Eisenberg, N. (1977). *Roots of caring, sharing, and helping*. San Francisco : W. H. Freeman.
- Natale, S. (1972). *An experiment in empathy*. Buck, England : The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in England and Wales.
- Noddings, N. (1984). *Caring*.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rsons, T., & Bales, R. F. (Eds.).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es*. New York : Free Press.
- Patterson, C. H. (1984).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21(4), 431-438.
- Perry, D. G., Bussey, K., & Freiberg, K. (1981). Impact of adult's appeals for sharing on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dispositions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2, 127-138.
- Piaget, J. (1928). *Judgement and reasoning in the child*. Paterson, NJ : Littlefield, Adams.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 Harcourt.
- Plutchik, R. (1987). Evolutionary bases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8-46).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dmond, M. (1989). The functions of empathy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42(7), 593-605.
- Richman, A. L., Miller, P. M., & LeVine, R. A. (1992). Cultural and educational variations in maternal responsiveness. *Develop-*

- mental Psychology, 28(4), 614-621.
- Ring, K., Lipinski, L. E., & Braginsky, D. (1965). The relationship of birth order to self-evaluation, anxiety reduction, and susceptibility to emotional contagion. *Psychological Monographs*, 79(Whole No. 603).
- Roe, K. V. (1977). A study of empathy in young Greek and U. S.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8(4), 493-502.
- Roe, K. V. (1980a). Early empathy development in children and the subsequent internalization of moral valu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0, 147-148.
- Roe, K. V. (1980b). Toward a contingency hypothesis of empathy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9(5), 991-994.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 centered framework.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Vol. 3). New York : McGraw-Hill.
- Rogers, C. R. (1975). Empathic :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Rogers, C. R. (1983). *Freedom to learn in the 80's*. Columbus, OH : Charles E. Merrill.
- Rogers, C. R., & Truax, C. B. (1967). The therapeutic conditions antecedent to change. In C. R. Rogers (E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its impact*. Madison, WI :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Rushton, J. P. (1980). *Altruism, socialization, and societ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Rutherford, E., & Mussen, P. H. (1968). Generosity in nursery 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39, 755-765.
- Schaefer, E. S., & Bell, R. Q. (1958). Development of a parent attitude research instrument. *Child Development*, 29, 339-361.
- Schaller, M., & Cialdini, R. B. (1988). The economics of empathic help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163-181.
- Schantz, C. V. (1983). Social cognition. In P.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III., pp. 495-555). New York : Wiley.
- Schroeder, D. A., Dovidio, J. F., Sibicky, M. E., Matthews, L. L., & Allen, J. C. (1988). Empathic concern and help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333-353.
- Selman, R. L. (1975). Level of social perspective taking and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children. *Journal of Moral Education*, 5, 35-43.
- Shantz, C. U. (1975).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on. In E. M. Hetheringto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5).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er, S. (1977). A re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al study of empathy. *Human*

- Development*, 20, 253-276.
- Spence, J. T., Deaux, K., & Helmreich, R. L. (1985). Sex roles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II, pp. 149-178). New York : Random House.
- Staub, E. (1971). The use of role-playing and induction in children's learning of helping and shar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42, 805-816.
- Stewart, D. (1956). *Preface to empathy*. 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 Stollak, G. E. (1978). *Until we are six : Toward the actualization of human potential*.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Stotland, E. (1969).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empath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 pp. 271-314). New York : Academic Press.
- Stotland, E., & Dunn, R. (1963). Empathy, self-esteem and birth order.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66, 610-614.
- Stotland, E., Mathews, K. E., Sherman, S. E., Hansson, R., & Richardson, B. Z. (1978). *Empathy, fantasy, and helping*. Beverly Hills, CA : Sage.
- Strayer, J.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components of children's empath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Detroit.
- Strayer, J. (1987). Affective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18-244).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yer, J. (1987). Picture-story indices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51-35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yer, J., & Eisenberg, N. (1987). Empathy viewed in contex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89-398).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yer, J., Schroeder, M. (1989). Children's helping strategies : Influences of emotion, empathy, and age. In N. Eisenberg (Ed.), *Empathy and related emotional responses* (pp. 85-105). San Francisco : Jossey-Bass.
- Sullivan, H. S. (1940). *Conceptions of modern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Szapocznik, J., & Kurtines, W. M. (1993). Family psychology and cultural diversity. *American Psychologist*, 48(4), 400-407.
- Thomas, D. L., Gecas, V., Weigert, A., & Rooney, E. (1974). *Family socialization and the adolescents*.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 Tomkins, S. S. (1963). *Affect, imagery, consciousness* (Vol. 2) : The negative affect. New York : Springer.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 Aldine.
- Truax, C. B., & Tatum, C. D. (1966). An extension from the effective psychother-

- apeutic model to constructive personality change in preschool children. *Childhood Education*, 42, 456-462.
- Tronick, E. Z. (1992). Introduction : Cross-cultural studies of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566-567.
- Tronick, E. Z., & Morelli, G. A., & Ivey, P. K. (1992). The Efe forager infant and toddler's pattern of social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568-577.
- Trotter, R. J. (1983). Baby face. *Psychology Today*, 17, 14-20.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1), 143-173.
- Wallach, M. A., & Wallach, L. (1983). *Psychology's sanction for selfishness*. San Francisco : W. H. Freeman.
- Waters, E., Wippman, J., & St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
- Whiting, B. B., & Edwards, C. (1988). *Children of different worlds : The formation of social behavior*.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Wise, P. S., & Cramer, S. H. (1988). Correlates of empathy and cognitive style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ical Reports*, 63, 179-192.
- Wispe, L. (1986).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0(2), 314-321.
- Zahn-Waxler, C., & Radke-Yarrow, M. (1990). The origins of empathic concern. *Motivation & Emotion*, 14, 107-130.
-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 A. (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mitations towards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 Zahn-Waxler, C., Radke-Yarrow, M., Wagner, E., & Chapman, M. (1992).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26-136.
- Zahn-Waxler, C., Robinson, J. A., & Emde, R. N. (1992).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twi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38-1047.

A Comparison of Empathy for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 A Preliminary Study

Sung-Il Kim

Department of Education
Kangnung National University

The phenomena of empathy occupies an unusual place in contemporary psychological writings. It is considered to be a critical determinant of social interactions, ranging from the behavioral interchange between parent and chil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positive social behavior such as altruism and helping, to the intimacy and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in the dyadic relationship between therapist and client. Since most of studies on empathy were based on the American people, the effect of cultural variables was not fully investigated. Thus, it was postulated that an intercultural study comparing empathy for people from two radically different child-rearing environments would better highlight the possible effects of this variable. The responses to the Emotional Empathy Test and the Parent Behavior Questionnaire of 60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compared to those from 32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students were more empathic than Korean students, and females more empathic than males from both groups. Support and control for parents of Canadian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of Korean students. For the effect of parent behavior on empathy, significant correlations of parental control were appeared to be .42 to .54 for Korean male students only, and that of paternal support appeared to be .45 for Canadian female students only. These differences were discussed as attributed to different patterns of discipline and culture.

부록 1. 공감적 이해도 검사의 내용

1. 낯선 사람이 집단 속에 외롭게 있는 것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2. *사람들은 동물의 감정을 너무 중요시 하는 것 같다.
3. *사람들 앞에서 애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 역겹다.
4. *풀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난다.
5. 주위 사람들이 초조해 하면 나도 초조해 진다.
6. *기뻐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든다.
7. 나는 친구의 문제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8.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의 가사는 때때로 내게 큰 감동을 준다.
9. *사람들에게 언짢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경우 나는 흔히 당황해 한다.
10. 내 기분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11. *내가 만난 낯선 사람들은 대부분 차갑고 냉정한 것 같았다.
12. 나는 직업훈련소와 같은 곳에서 일하기 보다는 사회사업과 같은 일을 하고 싶다.
13. *친구가 당황한다고 해서 나도 당황하지는 않는다.
14. 사람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나도 즐겁다.
15. *외로운 사람들은 비우호적인 것 같다.
16.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 나도 마음이 상한다.
17. 어떤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18. 나는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감정에 같이 휩쓸리게 된다.
19.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나는 몹시 흥분한다.
20. *주위 사람들이 근심하는 경우에도 나는 흔히 침착하게 있을 수 있다.
21. *친구가 자기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는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
22. *나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없다.
23. *때때로 극장에서 주위 사람들이 울거나 훌쩍거리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
24.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5. 주위 사람들이 우울해 하면 내마음도 편치 못하다.
26.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상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7. 동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매우 아프다.
28. *소설이나 영화에 감동되는 것을 보면 약간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29. 무력한 노인들을 보면 어쩐지 마음이 상한다.
30.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동정이 가기 보다는 짜증이 난다.
31. 나는 영화를 보면 그 내용에 깊게 빠져들게 된다.
32. *주위 사람들이 모두 흥분해도 나는 침착하게 있는 때가 많다.
33. *어린애들은 뚜렷한 이유없이 우는 경우도 많다.

*부정적 진술문임.

부록 2. 부모의 양육방식 검사의 내용

차 원	문 항 내 용
통 제	1. 만일 기대한 일을 내가 하지 않을 때는 어머니(아버지)는 그 일을 매우 엄하게 문책했다. 2.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3. 어머니(아버지)는 내 물건을 잘 정돈해 두도록 채근했다. 4.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학교 공부를 잘 하도록 독려했다.
지 지	1.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아버지)를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 2. 어머니(아버지)는 내게 칭찬을 잘 하였다. 3.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다. 4.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었다.